

양화적 표현 연구*

양 동 휘

이 논문에서는 지배결속 이론(支配-結束 理論 Government-Binding Theory)의 틀 안에서 제안되어 온 양화적 표현에 대한 이론, 특히 메이(May 1977, 1985)와 아운-리(Aoun & Li 1989)의 이론을 영어와 한국어의 자료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평가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¹⁾ 특히, 한국어의 존재 양화사(存在量化詞 existential quantifier)와 영어의 의문사(疑問詞 *wh*-phrase) 사이의 양화 이론(量化理論 quantification theory)상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이의 양화 이론상의 규명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양화사 인상

메이(May 1977, 1985)는 양화사는 논리 형태(論理形態 Logical Form)에서 그 양화사의 작용역(作用域 scope)을 나타내는 자리로 이동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이동을 양화사 인상(量化詞引上 Quantifier Raising)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메이(1977)는 다음 (1)의 문장은 논리 형태에서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어 (2_↑, 2_↓)같은 구조가 됨으로써 (1)의 작용역상의 중의성(ambiguity)이 설명된다고 하였다.

(1) Everyone loves someone.

(2) \uparrow . [_{IP} everyone_i [_{IP} someone_j [_{IP} t_i loves t_j]]].

2_↓. [_{IP} someone_j [_{IP} everyone [_{IP} t_i loves t_j]]].

(2_↑)은 목적어인 *someone*이 먼저 IP에 부착(附着 adjunction)되어 양화사-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주어인 *everyone*이 다시 IP에 부착되어 양화사-인상되었다. (2_↓)은 주어인 *everyone*이 먼저 양화사-인상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인 *someone*이 양화사-인상되었다. 작용역을 명시적으로 (3)과 같이 정의할 때, (2_↑)은 *everyone*이 *some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경우를 나타내고, (2_↓)은 *someone*이 *every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경우로 나타낸다.

* 이 연구는 '90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 (포함제철) 학술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지배-결속 이론에 대하여는 촘스키(Chomsky 1981, 1986a)를 참조할 것.

(3) α 의 작용역은 α 가 성분-통어(成分-統御 c-command)하는 영역이다.

즉, (2 \neg)은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2 \perp)은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는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2 \neg , \perp)의 논리 형태가 (1)과 같은 하나의 S-구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양화사 인상의 속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양화사 인상은 소위 α -이동(Move- α)의 한가지로서 α 가 양화사인 경우라고 본다. 따라서, 양화사는 *everyman*의 경우처럼 최대 투사 범주인 NP 또는 DP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 (4)의 구조 보존 가설(構造保存假說 Structure-Preserving Hypothesis)에 따라, 양화사는 어떤 문법 원리를 어기지 않는 한 어떠한 최대 투사 범주에도 이동·부착될 수 있다.

(4) 구조 보존 가설

원칙적으로, 핵(核 head)은 핵으로 그리고 최대 투사 범주는 최대 투사 범주로 이동하여 부착(adjunction) 또는 대입(代入 substitution)된다.

그러므로, (1)의 경우에도 목적어 양화사는 다음 (5)에서 보듯이 VP로 양화사-인상될 수 있다.

(5) [_{IP} everyone_i [_{IP} t_i [_{VP} someone_j [_{VP} love t_j]]]].

따라서, 다음 (6)과 같은 부착 중복 금지 조건(Ban on Multiple Adjuncton)이 있다면, (2 \neg , \perp)과 같은 논리 형태는 불가능하고 (5)와 같은 논리 형태만이 가능하므로, (1)의 중의성은 양화사 인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²⁾

(6) 부착 중복 금지 조건

하나의 범주에 부착이 2번 이상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다음에 이러한 양화사 인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논증을 검토해 보자. 첫째, 메이(1977, 1985)는 양화사가 양화사-인상되는 근본적인 이유로서 의미역 기준(意味役基準 θ -Criterion)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화사는 비지시적 표현(非指示的 表現 non-referential expression)이므로 의미역(意味役 θ -role)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양화사 인상으로 이동되지 않으면 의미역 기준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양화사 자체는 비지시적 표현이지만, 그 양화사의 흔적(痕跡 trace)은 지시적 표현(指示的 表現 R-ex-

2) (6)은 실제로 메이(1985)가 설정한 것이다.

pression)이므로 의미역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전자는 의미역 기준을 어기지만 후자는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화사 인상 규칙 자체는 다른 α -이동 규칙들처럼 강요적인 성격이 전혀 없지만, 의미역 기준의 위배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화사는 양화사 인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화사와 같은 비지시적 표현은 의미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현재로서 어떤 본래적인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화사 이동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적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양화사 자체도 의미역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양화사 인상 가설 이외에는 문제가 될 일이 별로 없다. 양화사의 흔적과 같은 변항(變項 variable)은 지시적 표현이라는 주장도, 그리고 지시적 표현인 변항은 의미역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모두 어떤 본래적인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화사 인상과 같은 가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이라고 하겠다.

한편, 양화사가 이동하는 근원적 이유가 의미역 기준의 준수에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때, 의미역 위치(意味役位置 θ -position)에 있지 않은 양화사는 인상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작용역을 갖는 요소로서 양화 부사(量化副詞 adverb of quantification), 부정어(否定語 negation), 등은 한번도 의미역 위치에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의미역 기준과 무관하므로, 메이(1977, 1985)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에게 양화사 인상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작용역도 구조적으로 나타내야 마땅하다면 이들에게도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의미역 기준에 입각한 양화사 인상에 대한 논증은 다분히 가설적이고, 모든 종류의 양화사에 두루 적용되지도 않는다.

양화사 인상에 대한 두번째 논증으로 제시된 주장은 양화사의 작용역을 구조적으로 명시하는 데에 양화사 인상 가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도 필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 하면, 양화사 인상 가설만이 양화사의 작용역을 구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윌리엄즈(Williams 1986)등은 양화사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양화사의 작용역을 구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화사 인상에 대한 세번째 논증은 양화사가 인상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약교차 제약(弱交叉制約 Weak Crossover Constraint)과 같은 문법 원리를 양화적 구문(quantified structures)에까지 아무런 수정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7ㄱ, ㄴ, ㄷ)의 예문을 고려해 보자.

- (7) ㄱ. His_i mother loves John_i.
 ㄴ. *His_i mother loves everyone_i.
 ㄷ. *Who_i does his_i mother love t_i?

(7ㄱ)은 *his*가 결속 원리 (B)를 만족시키므로 정문(正文)이다.³⁾ (7ㄴ)은 *his*가 결속 원리 (B)를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비문(非文)이다. (7ㄷ)도 *his*가 결속 원리 (B)를 만족 시킴에도 불구하고 비문이다. 그러나 (7ㄷ)의 경우에는 (8)의 약교차 제약을 어기어 비문임이 밝혀져 있다.

(8) 약교차 제약

변항이 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려면 전자가 후자를 성분-통어해야 한다.

(A variable cannot be the antecedent of a pronoun that it does not c-command.)

다시 말하면, (7ㄱ)에서 결속 이론상 *his*가 목적어인 *John*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듯이 (7ㄷ)에서도 결속 이론상 *his*가 목적어인 변항(즉, *who*의 흔적)을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항이 *his*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므로 약교차 제약 (8)을 어기어 (7ㄷ)은 비문으로 판정된다. 그런데, (7ㄴ)의 비문성도 (7ㄷ)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만 양화사도 논리 형태에서 양화사 인상에 의해 이동한다고 가정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7ㄴ)에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면 다음 (9)와 같은 논리 형태가 되는데, (9)는 (7ㄷ)처럼 약교차 제약을 어긴다.

(9) [_{NP} everyone: [_{NP} his_i mother loves t_i]].

따라서, 양화사 인상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서 (7ㄴ)과 (7ㄷ)의 비문성을 약교차 제약이라는 한가지 원리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양화사 인상 가설의 세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다. 우선 *who*와 같은 의문사가 문두(文頭)로 이동되어 있을때 그 의문사는 그 문장에서 운용자(運用子 operator)의 역할을 하고 그 의문사의 흔적은 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통사적으로 논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문사가 운용자가 될 수 있는 의미론적 요인은 그것이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everyone*과 같은 양화사도 비지시적이라는 점에서 문두로 이동한 의문사처럼 운용자로 간주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양화사를 의문사처럼 문두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양화사도 의문사처럼 통사적으로도 운용자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양화사 인상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 보겠다.

그러나 의문사 이동(*wh*-movement)과 양화사 인상 사이의 한가지 차이점은 전자는 COMP에 상정되는 [+WH]의 자질에 의해 유발(誘發 trigger)된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 유발 요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의문사의 경

3) 여기서 말하는 결속 원리는 슘스키(1986a)에 입각한 것이다.

우에는 운용자로서의 통사적 기능이 [+WH]의 자질에 의해 촉발되지만, 양화사의 경우에는 그런 촉발 요인이 없으므로, 엄밀히 말하여 양화사가 (7L)에서처럼 통사적으로 운용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만 양화사 인상이 인정된다고 보겠다. 그런데, 실제로 (7L)과 같은 예문의 비문성을 약교차 제약과 같은 문법 원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7L)과 같은 경우가 바로 양화사가 통사적으로 운용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화사가 의문사처럼 의미론적으로도 통사론적으로도 운용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양화사 인상 가설을 크게 지지하지만, 양화사 인상은 아직도 의문사 이동과는 달리 유발 요인(triggering factor)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논증이 요구된다고 보겠다.⁴⁾

양화사 인상에 대한 네번째 논증은 양화사 인상이 다른 운용자 이동과 똑 같은 이동 제약(移動制約 movement constraints)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논증이야말로 양화사 인상 가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은 아직까지 별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 대하여 뒤에 자세히 논하고 이 논증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메이(1985)의 작용역 원리

앞서 논의한 (1)의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은 양화사 인상 규칙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다음 (10)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작용역 중의성이 양화사 인상 규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10) Who does everyone love?

(10)은 (11-1, 2)과 같은 2가지 의미가 있다.

- (11) 1. 누가 모든 사람을 전부 사랑하니?
2. 모든 사람을 각각 누가 사랑하니?

그러나 (10)의 구조에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면 (12)와 같은 하나의 논리 형태만이 도출

4) 논항 이동(NP-movement)의 경우에는 다음 (i)와 같은 격여과(格濾過 Case Filter)가 유발 요인이 된다.

(i) 격여과

모든 명사구는 격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동 구문에 논항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수동태 동사의 목적어가 격을 받을 수 있는 주어 자리로 옮겨 가야 하기 때문이다.

(ii) [NP Δ was killed John]

논항 이동

되므로, (11 \neg , \perp)과 같은 중의성은 포착되지 않는다.

(12) [_{CP} Who_i does [_{IP} everyone_j [_{IP} t_j love t_i]]].

(3)의 작용역 정의에 따라 (12)는 *who*가 *every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를 나타낼 뿐이다. 다시 말하면 (12)는 (11 \neg)의 의미만을 나타낸다. (11 \perp)의 의미를 나타내려면 (12)에서 *everyone*이 다시 양화사-인상되어 *who*앞의 CP에 부착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13)의 부착 제약(Adjunction Constraint)때문에 불가능하다.⁵⁾

(13) 부착 제약

논항(argument)인 최대 투사 범주(CP 또는 NP)에는 아무것도 부착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이(1985)는 다음 (14)와 같은 작용역 원리(Scope Principle)를 제안하였다.

(14) 메이(1985)의 작용역 원리

두 양화사가 상호 m-통어하면 작용역 해석에 있어서 서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다.

(Two QP's may commute for scope interpretation if they m-command each other.)

m-통어의 정의는 다음 (15)와 같다.

(15) α 가 β 를 m-통어하려면,

(i) α 가 β 를, 또는 β 가 α 를 관할(管轄 domination)하지 않고,

(ii) α 를 관할하는 첫 최대 투사 범주가 β 도 관할해야 한다.

(α m-commands β iff

(i) neither α nor β dominate the other and

(ii) the first maximal projection dominating α dominates β .)

작용역 원리 (14)에 따라 (12)는 정확히 (12 \neg , \perp)의 두가지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12)에서 *who*와 *everyone*은 상호 m-통어하므로 *who*가 *every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뿐만 아니라 *everyone*이 *who*보다도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도 가

5) 부착 제약 (13)은 촘스키(1986b)등에 의해 제안 되었고, 부착 중복 금지 조건 (6)은 메이(1985)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능하다. 따라서, (10)이 (11ㄱ, ㄴ)과 같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 것은 양화사 인상 가설과 작용역 원리(14)로 설명된다.

그러나 (10)과 같은 예문에 대한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다음 (16)과 같은 예문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16) Who loves everyone?

왜냐하면, (16)의 구조에 양화사 인상을 적용하면 다음 (17)과 같은 논리 형태가 도출되는데, (17)은 작용역 원리(14)에 따라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16)은 한가지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17) [CP Who_i [IP everyone_j [IP t_i loves t_j]].

다시 말하면, (17)에서 *who*와 *everyone*은 상호 m-통어하므로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메이(1985)는 (16)과 같은 경우 *everyone*이 *who*를 m-통어할 수 있는 자리인 IP로 양화사-인상되는 것을 막는 길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17)에서처럼 *everyone*이 *who*와 그 흔적 사이에 끼면 그 *who*의 흔적이 *who*에게 선행사-지배(先行詞支配 antecedent-government)되지 않아 공범주 원리(空範疇原理 Empty Category Principle)를 어기므로, (17)에서처럼 *everyone*이 IP에까지 양화사-인상되면 안되고, (18)에서 처럼 VP에까지만 양화사-인상되어야 한다고 메이(1985)는 주장하였다.

(18) [CP Who_i [IP t_i [VP everyone_j [VP loves t_j]]]].

과연, (18)에서는 *who*는 *everyone*을 m-통어하지만 *everyone*은 *who*를 m-통어하지 못하므로 작용역 원리 (14)가 적용되지 않아, (18)은 *who*가 *every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만이 가능한데, 이것은 (16)의 의미에 부합한다.

메이(1985)가 (17)에서 *who*의 흔적이 *who*에게 선행사-지배되지 않아 공범주 원리를 어긴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촘스키(1981, 1986b)의 공범주 원리에 입각하면 (17)에서 *who*의 흔적은 *who*에게 선행사-지배되어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17)에서 *who*와 그 흔적 사이에 장벽(障壁 barrier)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메이(1985)는 (17)을 배제하기 위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촘스키(1981, 1986b)의 공범주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페젯스키(Pesetsky 1982)의 통로 포함

6) 장벽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서는 촘스키(1986b)를 참조할 것.

조건(通路包含條件 Path Containment Condition)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통로 포함 조건은 다음 (19)와 같이 정의된다.

(19) 통로 포함 조건

어떤 두 요소의 통로가 조금이라도 겹치면 한 쪽 통로가 다른 쪽 통로에 완전히 내포되어야 한다.

과연, (17)은 통로 포함 조건 (19)를 어긴다. 왜냐하면, (17)에서 *who*가 이동해 간 통로와 *everyone*이 이동해간 통로가 겹치면서도 어느 쪽 통로도 다른 쪽 통로를 완전히 내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적형(適型 well-formed)으로 받아들였던 논리 형태 (12)는 통로 포함 조건 (19)를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12)에서는 *who*가 이동한 통로와 *everyone*이 이동한 통로가 겹치지만 *everyone*의 통로가 *who*의 통로에 완전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로 포함 조건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는 촘스키의 선행사-지배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보다 보편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다음 (20)과 같은 경우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20) John gave someone every book.

(20)은 *someone*이 *every book*보다 더 넓은 작용역은 갖는 의미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에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논리 형태 중에서 통로 포함 조건을 어기지 않는 것은 (21)과 같은 경우뿐인데, (21)은 오히려 *every book*이 *some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21) [_{NP} every book]_i [_{NP} John [_{VP} someone_j [_{VP} give t_j t_i]]].

(21)에서 *every book*이 이동한 통로와 *someone*이 이동한 통로가 겹치는데, 전자가 후자를 완전히 포함하므로 통로 포함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someone*이 *every book*을 성분-통어하지 못하므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는 불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1985)는 양화사 인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10)과 같은 중의적인 문장을 위해서 작용역 원리 (14)를 설정했고, 작용역 원리(14)가 (16)과 같은 문장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로 포함 조건 (19)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를 설정했으나, 결국 통로 포함 조건이 (20)과 같은 문장의 설명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메이(1985)의 양화 이론은 각 요소가 조합적(組合的 modular)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요소의 문제로 보이는 것도 실은 이론 전체의 문제로 귀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메이(1985)의 양화 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

하여 새로운 양화 이론을 제안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과연, 아운-리(Aoun & Li 1989)는 메이(1985)와 같이 양화사 인상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메이(1985)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양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3. 아운-리(1989)의 작용역 원리

아운-리(1989)는 (10)의 중의성과 (16)의 비중의성을 메이(1985)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10) [_{CP} Who_i does [_{IP} everyone love t_i]]?

(16) [_{CP} Who_i [_{IP} t_i loves everyone]]?

즉, 그들은 중의적인 (10)에서는 양화사 *everyone*이 *who*의 흔적 *t*를 성분-통어하지만 비중의적인 (16)에서는 양화사 *everyone*이 *who*의 흔적 *t*를 성분-통어하지 않음에 착안하여 다음 (22)와 같은 작용역 원리를 제안하였다.

(22) 아운-리(1989)의 작용역 원리

양화사 α 가 양화사 β 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려면, α 가 β 를 포함하는 연쇄의 한 구성원을 성분-통어해야 한다.

(A quantifier α has scope over a quantifier β in case α c-commands a member of the chain containing β .)

실제로 작용역 원리 (22)를 S-구조인 (10)과 (16)에 직접 적용해도 이들 예문의 (비)중의성을 정확히 판명할 수 있다. 아운-리(1989)는 작용역 원리 (22)에서 '연쇄(chain)'라는 말로서 논항 연쇄(A-chain)도 비논항 연쇄(A'-chain)도 함께 지시하므로, (10)에서 양화사 *everyone*은 단일 구성원 연쇄(single-membered chain)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0)은 작용역 원리(22)에 따라 중의적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왜냐하면, (10)에서 *who*는 *everyone*을 성분-통어하고 *everyone*은 *who*의 흔적 *t*를 성분-통어하기 때문이다. (16)에서도 양화사 *everyone*은 단일 구성원 연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16)은 작용역 원리 (22)에 따라 비중의적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왜냐하면 (16)에서 *who*는 *everyone*을 성분-통어하지만 *everyone*은 *who*를 내포하는 연쇄의 어떤 구성원도 성분-통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0) 또는 (16)과 같은 경우에는 작용역 원리 (22)가 S-구조에 적용되어도 정확한 판명을 내려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원래 작용역 원리 (22)는 논리 형태 원리이므로 양화사 인상과 같은 논리 형태 과정이 작용된 뒤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0)과 (16)의 경우에도 양화사 인상이 적용된 뒤의 논리 형태에 작용역 원리(22)가 적용되었을 때 정확한 판명을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0)과 (16)은 S-구조에서 작용역 원리 (22)가 적용되었을 때 이미 정확한 판명이 가능했었으므로, 그러한 S-구조의 조건이 그대로 논리 형태에도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16)에서 양화사 *everyone*이 양화사-인상될 때 IP에 부착되지 않고 VP에 부착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16)에서 양화사 *everyone*이 IP에 부착된다면 *everyone*이 *who*의 흔적 *t*를 성분-통어하게 되어 작용역 원리 (22)가 (16)을 증의적으로 잘못 판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6)과 같은 S-구조에 양화사 인상 규칙이 적용될 때, 목적어인 양화사 *everyone*이 의문사 *who*의 흔적 *t*를 넘어서 IP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운-리(1989)는 다음 (23)과 같은 최소 결속 요건(最小結束要件 Minimal Binding Requirement)를 설정한다.

(23) 최소 결속 요건

논항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에게 결속되어야 한다.

(Variables must be bound by the most local potential A'-binder.)

최소 결속 요건 (23)은 (16)에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었을 때, (24₁)과 같이 양화사 *everyone*이 IP에 부착되는 것은 막아 주고, (24₂)과 같이 양화사 *everyone*이 VP에 부착되도록 해준다.

(24) 1. [_{CP} *who*_i [_{IP} *everyone*_j [_{IP} *t*_i loves *t*_j]]].

2. [_{CP} *who*_i [_{IP} *t*_i [_{VP} *everyone*_j [_{VP} love *t*_j]]]]].

다시 말하면, (24₁)에서 *who*의 흔적 *t*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인 *everyone*에게 결속되지 않았으므로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어 부적형(不適型 ill-formed) 논리 형태로 판정된다. 그러나 (24₂)에서는 *t*도 *t*도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켜 적형(適型 well-formed) 논리 형태로 판정된다. 그런데, 과연 (24₂)은 작용역 원리 (22)에 의해 *who*가 *every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만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왜냐하면, (24₂)에서 *who*는 *everyone*을 내포하는 연쇄를 성분-통어하지만 *everyone*은 *who*를 내포하는 연쇄의 어떤 구성원도 성분-통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10)의 논리 형태를 살펴보자. (10)에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면, 다음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everyone*이 IP에 부착될 수 밖에 없다.

(25) [_{CP} *who*_i does [_{IP} *everyone*_j [_{IP} *t*_i love *t*_j]]].

그런데 (25)는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긴다. 왜냐하면, (25)에서 t_i 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인 *everyone*에게 결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령 (10)에서 *everyone*이 CP로 양화사-인상되어 부착된다고 할지라도, 역시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운-리(1989)는 (25)와 같은 논리 형태에서 *everyone*이 t_i 의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가 안 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정의를 (26)과 같이 제한하기로 한다.

(26) α 가 β 에 대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가 되려면, α 가 β 를 성분-통어하고, α 는 비논항 위치에 있으며, α 의 지표(指標 index)를 β 에게 주었을 때 어떠한 문법 원리도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α qualifies as a potential A'-binder for β iff α c-commands β , α is in an A'-position and the assignment of the index of α to β would not violate any grammatical principle.)

과연, (26)의 정의에 따르면, (25)에서 *everyone*은 t_i 의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25)에서 *everyone*의 지표 j 를 t_i 에게 주었을 때, 변항인 t_i 가 논항 위치에 있는 t_i 에게 결속되어 (27)과 같은 결속 원리(C)를 어기기 때문이다.

(27) 결속 원리 (C)

변항은 그것의 운용자 (비논항 결속자)의 성분-통어 영역 안에서 논항-결속되어서는 안된다.

(A variable may not be A-bound in the c-domain of its operator.)

한편, 앞서 논의했던 (24-)은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정의 (26)을 적용해도 역시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긴다. 왜냐하면, (24-)에서 *everyone*의 지표 j 를 t_i 에게 주어도 t_i 가 논항-결속되지 않아 결속 원리(C)인 (27)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정의를 (26)과 같이 제한함으로써, (10)과 (16)에서와 같은 의문사 흔적의 경우는 잘 설명되는 듯 하지만, (20)에서와 같은 양화사 흔적의 경우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20) John gave someone every book.

(20)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someone*이 *every book*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만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작용역 원리 (22)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하여, 아운-리(1989)는 (20)의 D-구조를 다음 (28)과 같이 설정하고 (28)에서 *every book*은 최소 결속 요건(23)

때문에 *someone*을 지나서 양화사-이동될 수 없다고 하였다.

(28) [IP John [VP give [sc someone [VP [v e] every book]]]].

(28)에서 SC는 small clause (小節)의 약자이고 [v e]는 공동사(空動詞 empty verb)를 나타낸다. 즉, (28)에서 *someone*은 이 공동사의 주어이고 *every book*은 이 공동사의 목적어로서, *someone*과 *every book*은 이 공동사와 함께 하나의 소절 SC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조를 설정하는 이유는 (20)의 D-구조에서 *someone*이 일방적으로 *every book*을 성분-통어하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소 결속 요건 (23)에 따라 (28)에서 (29)와 같은 논리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

(29) [IP John [VP someone_i [VP give [sc t_i [VP every book_j [VP [v e] t_j]]]]]].

(29)는 작용역 원리 (22)에 따라 *someone*이 *every book*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29)는 (20)의 비중의성을 정확히 포착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양화사의 흔적은 의문사의 흔적과는 달리 변항이면서도 (27)의 결속 원리 (C)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29)에서 *every book*이 다시 양화사-인상되어 상위의 VP나 IP에 부착되어, 결국 작용역 원리(22)에 따라 *every book*이 *some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9)에서 *every book*이 다시 양화사-인상되어 *someone*을 지나 상위의 VP에 부착된다고 해도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상황에서 *someone*이 자기의 지표 *i*를 *every book*의 흔적에게 주면 그 흔적이 *someone*의 흔적 *t_i*에게 논항-결속되므로 (27)의 결속 원리 (C)를 어기게 되고, 따라서 *someone*이 (26)에 따라 *every book*의 흔적에 대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최소 결속 요건 (23)을 위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 개념의 정의를 의문사 흔적의 경우만을 위해 (26)과 같이 제한한 것은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에 한가지 부담이 된다고 보겠다. 우리는 뒤에 (26)의 제한을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제안할 것이다.

다음에는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으로 (1)의 중의성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자.

(1) Everyone loves someone

우선, (1)의 구조에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어 논리 형태가 도출될 때, 한가지 분명한 것은 *someone*이 *everyone*보다 상위로 양화사-인상되어 올라갈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someone*의 흔적이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와 같이 (1)의 논리 형태에서 *someone*이 *everyone*보다 상위로 양화사-인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someone*이 *every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의 중의성을 설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운-리(1989)는 소위 동사구내 주어 가설(動詞句內主語假設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받아들여 (1)의 S-구조는 대략 (30)과 같다고 주장했다.⁷⁾

(30) [_{IP} everyone_i [_{VP} t_i love someone]].

즉, D-구조에서 주어는 VP의 지정어(指定語 specifier)자리에 생성되었다가 S-구조에서 격여과(Case Filter)를 만족시키기 위해 IP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이동된다고 보았다.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지 않으면서, (30)에 양화사 인상 규칙을 적용하면, (31)과 같은 논리 형태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31) [_{IP} everyone_i [_{IP} t_i [_{VP} someone_j [_{VP} t_i love t_j]]]].

(31)에서, 주어인 *everyone*은 IP에 부착되어 있고, 목적어인 *someone*은 VP에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의 흔적 *t_i*도 후자의 흔적 *t_j*도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t_i*는 논항 흔적이므로 최소 결속 요건 (23)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논항 흔적 *t_i*가 작용역 원리 (22)에는 관련된다고 보면 (1)의 중의성이 설명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용역 원리 (22)에 활용되는 연쇄의 개념을 논항과 비논항이 모두 내포되는 것으로 설정하면, (31)에서 *everyone*을 내포하는 연쇄에 *t_i*도 포함되고, 따라서 *someone*이 *everyone*을 내포하는 연쇄의 구성원을 성분-통어하게 되고, 동시에 *everyone*이 *someone*을 성분-통어하여, (1)의 중의성이 설명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1)과 같은 예문의 중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논항 흔적을 작용역 원리 (22)를 위한 연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서 논의한 (16)의 비중의성을 설명하는 데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시 말하면, 동사구내 주어 가설에 입각하여 (16)의 S-구조를 다시 그리면 다음 (32)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지 않도록 하면서 양화사 인상을 적용하면 다음 (33)과 같은 논리 형태를 얻는다.

(32) [_{CP} who_i [_{IP} t_i [_{VP} t_i' love everyone]]].

7) 동사구내 주어 가설에 대하여서는 쿠프만-스포티취(Koopman & Sportiche 1988) 또는 양동휘(1989) 제6장 4절을 참조할 것.

(33) [_{CP} who_i [_{IP} t_i [_{VP} everyone_j [_{VP} t_i' love t_j]]]]].

(33)에서, *who*는 *everyone*을 성분-통어하고, *everyone*은 *who*를 내포하는 연쇄의 한 구성원인 *t_i'*를 성분-통어하므로 작용역 원리(22)에 따라 (16)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잘못 판정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운-리(1989)는 두가지 해결안을 제시하지만 모두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해결안은, (31)의 경우와 같이 양화사의 논항 흔적은 작용역 원리 (22)를 위한 연쇄에 포함시키고, (33)의 경우와 같이 의문사의 논항 흔적은 작용역 원리 (22)를 위한 연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결안으로서 설명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두번째 해결안은 양화사 인상은 양화사 전체의 최대 투사 범주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양화사 XP 중에서 지정어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양화사 인상을 아운-리(1989)는 특히 양화 요소 인상(量化要素引上 Bare-Q Raising)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이, 보통 양화사 인상에 더하여 양화 요소 인상을 설정하면, 작용역 원리(22)를 위한 연쇄에 논항 흔적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1)의 중의성과 (16)의 비중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고 아운-리(1989)는 주장한다.

우선, 작용역 원리(22)를 위한 연쇄에 논항 흔적을 일체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므로 (16)의 비중의성은 저절로 설명된다. 즉, (16)의 격형(well-formed) 논리 형태인 (33)에서 논항 흔적 *t_i*가 작용역 원리(22)를 위해서도 최소 결속 요건을 위해서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33)은 (16)의 비중의성을 잘 설명해 준다.

(1)의 중의성도 논항 흔적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양화 요소 인상(Bare-Q Raising)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는 것이다. (1)의 S-구조인 (30)에 종전의 양화사 인상 규칙을 적용하면 (31)이 유도되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러나 (30)에 양화사 인상 규칙 대신에 양화 요소 인상 규칙이 적용되면 다음 (34)의 논리 형태가 도출된다.

(34) [_{IP} every_i [_{IP} t_i-one [_{VP} some_j [_{VP} love t_i-one]]]]].

즉, (34)에서는 주어 *everyone* 중에서 양화 요소인 *every*만이 IP에 부착되었고, 목적어 *someone* 중에서 양화 요소인 *some*만이 VP에 부착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된 (34)의 논리 형태는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키고, 작용역 원리 (22)에 따라 *every*가 *som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한편, (30)에 양화 요소 인상 규칙을 적용하여 다음 (35)와 같은 또 다른 논리 형태를 도출할 수 있다고 아운-리(1989)는 주장한다.

(35) [P some; [P [NP every_i [NP t_i-one]] [VP love t_i-one]]].

(35)에서는 목적어 *someone*중에서 양화 요소인 *some*만이 IP에 부착되었고, 주어 *everyone* 중에서 양화 요소 *every*만이 주어 NP자체에 부착되었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시제절의 주어 NP에 양화 요소가 부착될 수 있는 이유는 영어에서 시제절의 주어 자리는 비의미역 위치(非意味役位置 θ' -position)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범주에 어떤 요소가 부착되어도 의미역 기준(θ -Criterion)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35)에서 보듯이 일단 주어 자리의 양화사의 양화 요소가 그 주어 자체에 부착되면, 목적어 자리의 양화사의 양화 요소가 주어를 지나 IP에 부착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주어의 양화 요소가 주어 자체에 부착되어 목적어 자리의 양화사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므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가 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35)는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키고 작용역 원리 (22)에 따라 *some*이 *every*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결국 (30)의 S-구조에서 양화 요소 인상을 통하여 (34)와 (35)의 논리 형태를 도출함으로써 (1)의 중의성을 설명한 셈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양화 요소 인상에 입각한 분석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양화 요소 인상에 의한 흔적도 최소 결속 요건 (23)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양화 요소의 흔적도 변항으로 간주되어야 할 터인데, 과연 양화 요소의 흔적도 다른 양화사의 흔적처럼 의미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35)에서 목적어 자리의 [NP t_i-one]에서 t_i가 의미역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NP t_i-one]전체가 *love*에게서 의미역을 받는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NP t_i-one]전체가 변항의 역할을 한다고 보겠다. 그렇게 되면, [NP t_i-one] 자체가 잠재적 비논항 결속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주어인 [NP every_i [NP t_i-one]] 전체가 IP에 양화사 인상으로 부착된 뒤에 목적어인 [NP t_i-one]에 대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로 등장하여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게 될 수 있다.

양화 요소 인상에 입각한 분석의 두번째 문제는 양화 요소 인상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6)의 경우 목적어인 양화사 *everyone*이 VP에 부착되어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키는 적형(well-formed) 논리 형태가 된다고 하였다. 만일 (16)에서 목적어인 양화사 *everyone*이 다음 (36)에서 보듯이 IP에 부착되면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어 비적형(ill-formed) 논리 형태가 된다.

(36) [CP who_i [IP everyone_i [IP t_i [VP love t_i]]]]].

그러나 (36)에서 양화사 *everyone*이 비의미역 위치에 와 있으므로, 그 양화 요소 *every*가 다음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veryone* 자체의 NP에 양화 요소 인상에 의해 부착될 수

있다.

(37) [CP who_i [IP [NP every_k [NP t_k-one]_j] [IP t_i [VP love t_j]]]].

(37)은 (36)과는 달리 최소 결속 요건 (23)을 어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운-리(1989)에 의하면, *every*의 양화 요소 인상으로 인해 주어 NP가 *t_i*에 대하여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밝혀진 아운-리(1989)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화 요소 인상, 둘째 작용역 원리 (22)를 위한 연쇄에의 논항 흔적 포함, 셋째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제한 (26)등이다. 이 문제점들을 모두 제거하고, 최소 결속 요건(23)과 작용역 원리(22)만으로 앞서 논의한 양화 현상을 다음에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운-리(1989) 자신들도 언급하고 있으나 별로 활용하지 않은 다음 (38)의 가설을 심각히 활용하고자 한다.

(38) 양화사 인상은 의미역 기준에 의하여 유발(trigger)된다. 따라서, 비의미역 위치 (θ' -position)에 있는 양화사는 반드시 양화사-인상될 필요가 없다.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영어에서 IP의 지정어 자리는 비의미역 위치이므로 이 자리에 있는 양화사는 (38)의 가설에 따라 양화사-인상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1)의 경우 목적어인 *someone*에게만 양화사 인상이 적용되어 도출된 다음 (39)와 같은 논리 형태가 적형(well-formed)으로 인정된다.

(39) [IP someone_i [IP everyone [VP love t_i]]].

(39)에서 변항의 유일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는 *someone*인데 바로 *someone*에게 결속되었으므로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키며, *everyone*은 비의미역 위치이지만 논항 위치(A-position)에 있으므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작용역 원리 (22)에 의해 (39)는 중의적으로 정확히 해석된다. 즉, *someone*이 단일 구성원 연쇄인 *everyone*을 성분-통어하므로 *someone*이 *every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가 가능하고, 또 한편, *everyone*이 *someone*을 포함하는 연쇄의 한 구성원인 *t_i*를 성분-통어하므로 *everyone*이 *some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1)의 중의성은 앞서 논의한 문제가 있는 새로운 가설들을 버리고 (22), (23), (38)의 가설만으로 원만히 설명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던 (10)의 경우에도 (38)의 가설에 따라 주어인 *everyone*에 양화사 인상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10)의 S-구조가 그대로 논리 형태가 된다고 보겠다.

(10) [_{CP} who_i does [_{IP} everyone love t_i]]?

(10)에서도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있는 *everyone*은 비의미역 위치이지만 논항 위치에 있기 때문에 *t_i*에 대한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용역 원리 (22)는 (10)을 중의적으로 정확히 판명한다. 왜냐하면, (10)에서 *who*가 단일 구성원 연쇄인 *everyone*을 성분-통어하므로 *who*가 *everyone*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가 가능하고, 또 한편, *everyone*이 *who*를 포함하는 연쇄의 한 구성원인 *t_i*를 성분-통어하므로 *everyone*이 *who*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의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0)의 중의성도 앞서 논의했던 문제의 가설들을 버리고 (22), (23), (38)의 가설만으로 원만히 설명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던 (16)의 경우도 그 문제의 가설들을 버리면 원만히 설명된다. 즉,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키는 (16)의 논리 형태는 오직 다음의 (24c)뿐이며, (24c)은 작용역 원리 (22)에 따라 비중의적으로 해석되므로 (16)의 비중의성은 정확히 설명된다.

(24) c. [_{CP} who_i [_{IP} t_i [_{VP} everyone_j [_{VP} love t_i]]]]].

결론적으로,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에서 양화 요소 인상(Bare-Q Raising)은 문제만 야기할 뿐 불필요하며, 논항 혼적은 최소 결속 요건 (23)에도 작용역 원리 (22)에도 전혀 관여되지 않으며, 최소 결속 요건 (23)의 잠재적 비논항 결속자의 자격을 (26)과 같이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3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제거함으로써 다음에 논의할 양화사 인상의 공범주 원리에 대한 연구에도 공헌한다.

4. 양화 이론과 공범주 원리

앞서 우리는 메이(1985)의 양화 이론에 통로 포함 조건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메이(1985)의 양화 이론보다 크게 개선된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에서도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양화사 인상에 대한 공범주 원리의 적용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운-리(1989)는 양화사 인상은 공범주 원리를 준수하는 대신 최소 결속 요건 (23)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운-리의 양화 이론이 지배-결속 이론의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고, 지배-결속 이론에는 모든 이동 현상, 즉 α -이동(Move- α)에 대한 제약으로서 공범주 원리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양화 이론에의 공범주 원리의 도입은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는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에 공범주 원리를 도입하는

한가지 방안을 간략하게나마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안은 아운-리(1989)의 최소 결속 요건 (23)을 최근 릿찌(1990)의 상대적 최소성(relativized minimality) 이론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에서 양화사 인상에 가해지는 유일한 이동 제약(movement constraint)은 최소 결속 요건 (23) 뿐이므로, 최소 결속 요건 (23)을 릿찌(1990)의 공범주 원리에 통합시킴으로서 양화사 인상에 대한 공범주 원리에 입각한 규명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 형태 이동에의 적용이 연구되지 않고 있는 릿찌(1990)의 공범주 원리를 보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릿찌(1990)가 제시하고 있는 상대적 최소성 이론에 입각한 공범주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흔적은 핵-지배(核支配 head-government)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시적 의미역(指示的 意味役 referential θ -role)을 갖는 비논항-결속 흔적(A'-bound trace)은 그 운용자(operator)에게 결속되어야 하고, 기타 흔적은 선행사-지배(antecedent-government)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릿찌(1990)의 공범주 원리는 접속적 공범주 원리('conjunctive' ECP)라고 불리운다. 지시적 의미역이란 그 의미역 배당자(θ -role assigner)인 술어(述語)가 나타내는 사건(event)의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의미역이다. 선행사 지배는 다음 (40)과 같이 정의된다.

(40) 선행사-지배

α 가 β 를 선행사-지배하려면, α 와 β 의 지표(index)가 다르지 않고(non-distinct), α 가 β 를 성분-통어하고, β 를 관할(dominate)면서 α 를 비관할(exclude)하는 장벽(barrier)이 없어야 하고, 상대적 최소성을 준수해야 한다. α 가 β 를 선행사-지배할 때 상대적 최소성을 준수하려면, β 를 성분-통어하면서 α 를 성분-통어하지 않는 요소 γ 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γ 는 β 가 핵-연쇄(X° -chain)에 속하면 핵(head)이고, β 가 논항-연쇄(A-chain)에 속하면 논항-지정어(A-specifier)이고, β 가 비논항-연쇄(A'-chain)에 속하면 비논항-지정어(A'-specifier)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경우처럼 의미역 위치의 양화사는 그 흔적이 릿찌(1990)에서 말하는 지시적 의미역을 갖는 변항이므로, 릿찌(1990)에 따르면 핵-지배되면서 그 운용자에게 결속되지만 하면 되고 선행사-지배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양화사의 흔적은 최소 결속 요건 (23)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릿찌(1990)의 이론에서 양화사 흔적은 오히려 핵-지배되면서 선행사-지배된다고 보아야 할 듯 하다. 그런데, 과연 아운-리(1989)의 최소 결속 요건(23)에서의 잠재적 결속자 개념과 릿찌(1990)의 선행사-지배 (40)에서의 상대적 최소성 개념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이제, 양화사 인상으로 인한 양화사 흔적은 최소 결속 요건 (23) 대신에 릿찌(1990)의 핵-지배와 선행사-지배를 준수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 앞서 논의했던 양화적 구문들을 검토해 보자.

다음의 (39)에서 t_i 는 *love*에게 핵-지배되고 *someone*에게 선행사-지배되므로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킨다.

(39) [_{IP} *someone*_i [_{IP} *everyone* [_{VP} *love* t_i]]].

(39)에서 *someone*_i과 t_i 는 비논항 연쇄(A'-chain)를 이루고 있고, *everyone*은 논항-위치(A-position)에 있으므로 상대적 최소성이 만족된다.

다음의 (10)에서도 t_i 는 *love*에게 핵-지배되고 *who*_i에게 선행사-지배되어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킨다.

(10) [_{CP} *who*_i *does* [_{IP} *everyone* *love* t_i]]?

(10)에서 *who*_i와 t_i 는 비논항 연쇄를 이루고 있고, *everyone*은 논항-위치에 있으므로 상대적 최소성이 만족된다.

다음의 (24c)에서도 t_i 는 C에 있는 Agr에게 핵-지배되고 *who*에게 선행사-지배되므로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키고 t_i 는 *love*에게 핵-지배되고 *everyone*에게 선행사-지배되므로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킨다.

(24) c. [_{CP} *who*_i [_{C'} Agr [_{IP} t_i [_{VP} *everyone*_j [_{VP} *love* t_{ij}]]]]].

(24c)에서도 상대적 최소성이 만족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수정된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과 릿쨌(1990)의 공범주 원리가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상호 보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5. 한국어의 양화 현상

앞서 논의한 영어 예문 (16)이 비중의적이듯이 (16)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문 (41)도 비중의적이고, 영어 예문 (10)이 중의적이듯이 (10)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문 (42)도 중의적이다.

(41) 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

(42) 모든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니?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영어 예문 (16)과 (10)의 경우는 S-구조에서 이미 의문사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있으나, 한국어 예문 (41)과 (42)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영어 예문 (16)과 (10)에서 의문사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있다는 사실이 이들 문장의 작용역 해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어 예문 (16)과 (10)의 작용역 현상과 한국어 예문 (41)과 (42)의 작용역 현상이 각각 같다는 것을 동시에 한가지 원리로 설명하려면, 한국어 예문 (41)과 (42)의 경우에도 논리 형태에서 의문사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논리형태에서 이러한 의문사 이동과 양화사 이동이 적용된 뒤의 (41)과 (42)의 논리 형태는 다음 (43)과 (44)와 같이 될 것이다.

(43) [CP 누가_i [IP [VP t_i [V 모든 사람들_j [V t_j 사랑하니]]]]??

(44) [CP 누구를_i [IP 모든 사람이_j [VP t_j t_i 사랑하니]]??

한국어에서는 주어_i가 S-구조에서도 동사구(VP)안에 그대로 남아서 동사에게서 의미역과 격(格)을 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43)의 경우, 주어인 의문사가 VP의 지정어 자리에서부터 직접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했다고 보고 목적어 모든 사람은 t_i의 선행사-지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V'에 부착된다고 보았다.

(43)에서 t_i도 t_j도 모두 동사에게 핵-지배되고 모두 선행사-지배도 만족시킨다. 그리고 작용역 원리 (22)에 의해 (43)은 비중의적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44)의 경우에는 주어 모든 사람이 비의미역 위치인 IP의 지정어 자리로 논항 이동(NP movement)해 감으로써 양화사 인상을 모면하고 t_i의 선행사-지배를 방해하지 않는다. (44)에서도 모든 흔적은 동사에게 핵-지배되고 선행사-지배도 만족시킨다. 그리고 작용역 원리 (22)에 의해 (44)는 중의적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위의 두 예문에서 의문사 대신에 존재 양화사 누군가를 대입해도 작용역 해석은 변하지 않는다.

(45)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 사랑한다.

(46)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즉, (45)는 비중의적이고 (46)은 중의적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존재 양화사는 영어의 존재 양화사와는 달리 오히려 통사적으로 의문사와 같다고 가정하고, 논리 형태에서 의문사처럼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45)와 (46)의 논리 형태도 (41)과 (42)의 논리 형태처럼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47) [CP 누군가가_i [IP [VP t_i [V 모든 사람들_j [V t_j 사랑한다]]]]].

(48) [CP 누군가를_i [IP 모든 사람이_j [VP t_i t_j 사랑한다]]].

(47)과 (48)은 (43)과 (44)의 경우와 똑같이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키고 똑 같은 작용역 해석을 받는다.

(41)과 (42)에 뒤섞기가 적용되면 다음 (49)와 (50)이 된다.

(49) 모든 사람을 누가 사랑하니?

(50) 누구를 모든 사람이 사랑하니?

(49)는 중의적이고, (50)은 중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중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논리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51) [CP 누가_i [IP 모든 사람들_j [IP [VP t_i t_j 사랑하니]]]]?

(52) [CP 누구를_i [IP t_i [IP 모든 사람이_j [VP t_j t_i 사랑하니]]]]?

(51)의 경우 t_i가 선행사-지배가 되지 않으므로 아마도 뒤섞기된 것은 논리 형태에서 공범주 원리가 적용되기전에 재구성(再構成 reconstruction)된다고 가정해야 할 듯하다. 작용역 원리 (22)는 (51)을 중의적으로 정확히 판정한다. (52)의 경우는 (44)의 경우와 똑같이 공범주 원리가 만족된다. 그리고 작용역 원리 (22)는 (52)도 (44)처럼 중의적으로 판정한다. (50)을 비중의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논리 형태에서 뒤섞기되기 전의 위치에 있는, 뒤섞기된 요소의 흔적은 무시된다고 보겠다.

(45)와 (46)에 뒤섞기가 적용되면 다음 (53)과 (54)가 된다.

(53) 모든 사람을 누군가가 사랑한다.

(54) 누군가를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

(53)은 중의적이고, (54)는 중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중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대한 설명은 (49)와 (50)의 경우와 똑 같다.

6. 마무리

이 논문에서 우리는 메이(1977, 1985)와 아운-리(1989)의 양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

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한국어의 양화 현상에 적용하여 보았다. 특히 아운-리(1989)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가설의 설정에 기인함을 지적했고 그들의 이론이 릿저(1990)의 공범주 원리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존재 양화사가 통사적으로 의문사와 같음을 밝혀내고 이것이 어떻게 양화 이론으로 규명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양동휘. 1989. 「지배-결속 이론의 기초」. 서울:신아사.
- Aoun, J. and Y. A. Li. 1989. *Syntax of Scope*. m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 Chomsky, N.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Praeger Publishers.
- Chomsky, N. 1986b. *Barriers*. The MIT Press.
- May, R. 1977. *The Grammar of Quantification*. Ph.D. dissertation, MIT.
- May, R. 1985. *Logical Form: Its Structure and Derivation*. MIT Press.
- Koopman, H. and D. Sportiche. 1988. *Subjects*. ms., UCLA.
- Pesetsky, D. 1982. *Paths and Categories*. Ph.D. dissertation. MIT.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The MIT Press.
- Williams, E. 1986. A Reassignment of the Functions of LF. *Linguistic Inquiry*. 17.2.

서울대학교